

재정 조기집행 외쳤지만... 작년 SOC공기업 성적표 '저조'

(1월~11월)

철도공단·도공·에너지공단 등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 60~70%대 그쳐
SOC예산 불용·이월 증가 불가피... 업계 "건설경기 침체 부추긴 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집행과 불용예산 최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1월 도로와 철도,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한 달 집행실적이 남아지만, 관련 SOC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 증가가 불가피해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월)'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총 280조 2000억원 중 260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93.0%를 기록했다.

집행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의 집행률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집행실적은 223조 9000억원으로, 연간계획(238조 6000억원) 대비 93.8%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연간계획(41조 6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88.3%(36조 7000억원)

로 조사됐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의 집행률이 102.9%에 달했고 한국수력원자력(97.3%)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을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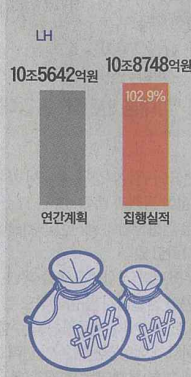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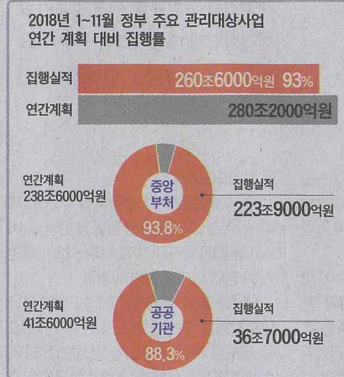
특히 도로와 철도, 에너지 등 주요 SOC공기업의 실적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난해 1~11월 집행실적은 4조 1935억원으로, 집행률은 연간계획(6조 7138억원) 대비 62.5%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조 7762억원의 집행계획을 세웠으나 작년 11월까지 78.7% 수준인 2조 1860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연간 1조 1567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던 한국에너지공단 또한 집행률은 78.7%(9098억원)에 머물렀다.

12월 한 달간의 집계가 남아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계획 달성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집행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 등 대규모 SOC사업의 발주 및 착공이 지연되고 추진사업도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정부가 매달 관리점검회의 등을 열어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SOC사업 예산은 또다시 불용액이 증가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작년 정부가

작년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도로와 철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집행실적은 턱없이 부진하다"며 "결과적으로 SOC 공기업도 건설경기 침체를 부추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SOC 사업별 체계적인 민원관리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불용 없는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세수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7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연간 목표액을 넘어서면서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실적)은 104.4%를 기록했다.

방송권기자 skbond@

레고랜드부터 선사유적지까지...

춘천 테마파크 개발사업 속도

단일 프로젝트 비용만 '5270억'
레고랜드 올 3월 착공 준비 박차
중도 선사유적지에도 100억 투자
지역 건설업계 수주난 해소 기대



레고랜드 조감도.

레고랜드와 선사유적지 등 강원도 춘천 지역에 테마파크 개발사업들이 올해 탄력을 받고 있다.

단일 프로젝트 비용만 5000억원에 달해 강원도 건설업계의 사업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강원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주체인 멀린은 올해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엘엘개발에 테마파크 관련 설계, 공사 관련 사항을 인계받고 있다.

멀린은 엘엘개발로부터 인수절차를 매듭짓고 시공사 선정 작업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사인 멀린은 현재 4개 대륙 25개국에 약 124개 관광명소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이다.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멀린은 지난달 17일 엘엘개발과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다. MDA는 레고랜드 코리아를 멀린이 직접 투자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14일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 안건이 월안 의결돼 멀린이 요구한 MDA 관련 동의회를 충족했다.

춘천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상·하중도 일원에 약 106만여㎡ 규모로 지어지

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행사 멀린 책임 아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 투자금 3000억원과 추가투자금 2270억원 등 총 5270억원이 레고랜드 개발에 투자될 계획이다.

레고랜드는 2021년 7월 개장되면 연간 200만명 관광객 유치와 9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44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레고랜드 바로 옆의 중도 문화재보존구역엔 선사유적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관광지 개발 시행사 엘엘개발이 이 구역 11만㎡ 규모의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중도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엘엘개발은 올해 상반기 안에 문화재청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레고랜드 개장보다 8개월 빠른 2020년 12월까지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개장할 계획이다.

선사유적 테마파크는 중도에서 발굴된 지식묘와 환호를 복원해 청동기 마을을 재

현한다는 구상이다. 청동기 시대 들판 조성과 전시관도 건축할 계획이다.

중도에선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부지조성 작업 중이던 2013년 4월 기원전 13세기~12세기 청동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의 유적이 대량 발굴된 바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